

 <b>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b>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h1>보도자료</h1>	<a href="http://www.kisti.re.kr">http://www.kisti.re.kr</a>
<b>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b>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869-0976 / 이해준 0676 / 손영주 0997 문의: 데이터분석본부 기술사업화센터 김은선(02-3299-6034) 박창걸(02-3299-6036) 변정은(02-3299-6295)		
배포번호 : 2019-57 배포일자 : 2019.08.28.	매수 : 보도자료 3매	배포처 : 대외협력실

## 데이터 기반의 기술사업화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길을 찾다!

- 국내·외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동향과 활용사례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운, 이하 KISTI)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기술사업화 개념과 국내외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  
<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

- 4차 산업혁명 등장과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신기술의 도입으로 신제품, 신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산업판도를 재편한 펄프스(핀터레스트·우버·리프트·팔란티어·슬랙)와 팡(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의 성공 배경에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정확한 커스터마이징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논의 가운데 하나로써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R&D 생산성 증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R&D 지원 이외에, 투입된 자금이 경제적 성과로 연계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R&D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이 기술사업화이다.
  - R&D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부터 경제적 성과 창출의 전 과정을 기술사업화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넘어선 기업의 가치 창출을 통한 가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 특히, 소재부품 분야 등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 요구가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단계별 기술사업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착상단계부터 신기술·신제품의 지속적 가치창출단계에 이르는 쏠기술사업화 관점에서의 단계별 문제 발굴,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가치 창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제조·마케팅 단계에서 창출되고 있는 바, 향후 R&D 기획 단계부터 기업의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가능케 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 데이터의 양보다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와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KISTI와 같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이디어의 착상 및 보육, 신기술의 시연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은 KISTI 기술사업화센터가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노하우·전문가들의 인사이트가 반영된 플랫폼으로, 그간 기술사업화 지원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관들이 현장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KISTI 최희윤 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KISTI가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보다 많은 기술사업화 지원 기관들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연구생산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면서, “이번 KISTI 이슈브리프 제12호를 통해 KISTI가 추구하고 있는 데이터 생태계로 중소기업들이 한걸음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별첨 : KISTI 이슈브리프 제12호